

‘더현대 서울’서 광주김치 팝업스토어 열린다

광주시, 오는 15일까지 운영
대통령상 수상 김치 등 판매
MZ 저격 1인용 김치 등 다양
“지역 소상공인 수도권 진출”

광주광역시시가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광주김치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스토어에는 △대통령상 수상 김치(김효숙, 임란) △프리미엄 광주김치(빛고을김치) △광주김치 응용요리(다르다김밥) △김치 관련 굿즈 등을 선보인다.

대통령상 수상 김치는 ‘2017년 광주김치축제 김치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한식대첩2’의 준우승자인 김효숙 김치명인, ‘2023년 광주김치축제 김치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자인 임란 명인의



15일까지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 내에서 운영되는 ‘광주김치 팝업스토어’.

광주광역시 제공

김치를 맛볼 수 있다.

또 광주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김밥 업체인 ‘다르다김밥’의 묵은지참치김밥, 볶음김치김밥, 볶음김치주먹밥, 광주상추튀김김밥 등 친근하면서도 색다른 맛의 김치를 활용한 김밥을 만나볼 수 있다.

김치 굿즈로는 동치미 모양의 더운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동치미 냉감담요부터 키링, 양말, 앞치마, 손수건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됐다.

특히 1인용 소포장 김치 등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제품 구성을 통해

젊은 세대의 감각에 부합하는 새로운 김치 소비문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자극적이고 강렬한 경험을 추구하는 등 매운맛을 즐기는 MZ세대의 취향을 반영해 맵지만 진한 감칠맛과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매운김치 등 다양한 김치도 선보인다.

광주김치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젊은 소비층과의 소통을 강화해 김치 소비문화의 세대 저변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제품도 함께 전시한다. 참여업체는 △곰브루어리(전통주) △위로푸드(건조김치) △라운푸드(한과) △느린떡거리(부각) △사단법인 참(광주주먹밥 스낵) △임형문꿀(꿀) 등 8개 업체다.

광주시는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김장대전 인스타그램 팔로우 참여, 광주시 카카오톡 채널 가입 등 광주와 관련된 SNS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방문객의 관심을 유도한다.

광주시는 이번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해 광주김치의 수도권 유통 확대와 함께 지역 식품산업 전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판로 다각화에 나설 방침이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팝업스토어는 광주김치의 마케팅 강화와 세대 맞춤형 전략을 통해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현대 서울’과의 협업이 광주김치를 포함한 지역 소상공인 제품의 수도권 진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도시공사, 선운지구다사로움 일반분양

공가세대 28가구 대상
20·23일 1·2순위 청약

광주도시공사는 선운지구다사로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간 중 발생한 공가세대 28세대를 일반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급 세대는 분양전환 기간 중 임차인 퇴거로 발생한 공가로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공급 세대는 △전용 49㎡ 19세대(분양가 1억9040만원) △전용 76㎡ 5세대(분양가 2억7650만원) △전용 84㎡ 4세대(분양가 2억9340만원)로 구성돼 있다. 기존 입주단지인 만큼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 장점이며, 기존 입주자 퇴거 후 현 상태 그대로 인계받는 조건이다.

청약자격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 중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가능하다. 1순위 자격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이 필요하며 당첨 시 3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gmcc.co.kr>)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대주택콜센터(062-225-2280)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광주경총, 809개 회원사 골목경제 활성화 동참

새 정부 기조 맞춰 경제회복 노력
전통시장·동네 상권 등 적극 이용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원사 809곳이 골목경제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9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내수 침체와 성장 저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 정부의 골목경제와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에 전 회원사가 동참하기로 했다.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골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새 정부는 최우선과제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역사랑 상품권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광주경총은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골목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지역화폐 발행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시 전통시장, 동네마트 이용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또 광주경총 회원사 중 소상공인 지역 건물에 대해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점심시간, 저녁 모임은 회원사 주변 골목상권을 우선 이용하는 한편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구청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회원사와 공유할 계획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전쟁과 계엄 등의 여파로 지역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R&D개발, 인프라 구축, 건설 경기 회복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먹고 사는 골목경제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 전 회원사가 골목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골목경제 정책 기조는 공정한 경쟁, 자립적 생태계, 직접 지원 강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새 정부를 믿고 조속히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광주경총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최권범 기자



광주은행은 지난 5일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와 여수캠퍼스에서 지역 대학생들을 응원하는 특별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지역 대학생 응원 행사 펼쳐

전남대서 ‘든든한 한 끼’ 선물

광주은행은 지난 5일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와 여수캠퍼스에서 지역 대학생들을 응원하는 특별 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광주은행은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전남대 재학생들에게 삼계탕을 무료로 제공하고, 푸드트럭을 통해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나누며 학업에 지친 학생들

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대학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넓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신세계,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콜라보 선봬

플레이 스팟 UFC 스포츠 매장

광주신세계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선보인다.

스포츠 브랜드 ‘UFC스포츠’는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한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에서는 ‘귀멸의 칼날’ 탄지로, 네즈코, 젠이츠, 이노스케 등 주요 캐릭터들의 개성을 모티브로 제작된 티셔츠와 맨투맨, 모자와 양말 등으로 구성돼 있다.

UFC스포츠와 귀멸의 칼날 콜라보레이션 소식은 SNS를 통해 애니메이션과 격투기 팬들에게 빠르게 알려지면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출시 제품은 9일 SSG 온라인 스토어에서 단독으로 선공개 된다. 이후 13일부터 광주신세계 플레이 스팟 UFC 스포츠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콜라보레이션 제품은 한정 수량으로 제작돼 초기에 품절될 수 있다.

최권범 기자



광주신세계 플레이 스팟에서 UFC 직원이 귀멸의 칼날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